

# 남아 골라내기 심각하다

— 변태의료 행위 극성  
과감한 메스시급 —

채수용/약사공론 기자



비 나이다. 비나이다. 천지 신명께 비나이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점지해주시면...

또는 부처님 앞에 수백번 절을 하며 백일기도의 정성으로 아들을 바라던 우리민족의 남아선호 사상은 조금도 변한것 없이 시대가 바뀌면서 과학의 이름으로 온갖 변칙의료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는 소식이다.

아들갓기를 원하는 염원자체를 비난할 성질은 못된다.

왜냐하면 아들을 선호하는 사상은 어느 민족이던지 문화 역사의 차이에 따라 정도는 달라도 의식의 보편적인 흐름으로 자리잡아 왔기 때문이다.

천지신명께 아들 낳아줄 것을 고대하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운명으로 돌리며 체념해 버린 「한」의 응집이 오늘날 과학의 힘과 결합해 「남자천지」를 양산해 내고 있는 부조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른바 「性선택 임신」을 부채질 하는 일부 제약사와 산부인과 의원들의 변태의료 행위가 아들갓기를 원하는 무궁한 수요계층의 심리를 이용, 날로 도를 더해가는 현실에 마땅한 규제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모 약품회사는 性선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광고까지 해가며 性선택 임신사업을 벌이고 있고 많은 산부인과에서 초음파검사와 함께 아들 낳는 약품을 투약, 성공률 1백%(?)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고 한다.

또 시중 서점에서는 『아들, 딸 마음대로 낳으세요』 『남아는 가려 낳을 수 있다』 등 선택지침서가 절찬리(?)에 판매중이라고 한다.

생명의 존엄성이나 성별은 신성한 것이라고 원초적 진리를 강조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서울의 한 남·녀공학 중학교에 「홀아비반」이 생겨 짝없는 홀아비 남학생들의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니라는 최근 모 일간지 보도는 웃어버릴 수 없는 심각성이 내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도된 통계에 의하면 현재 전국 국교생의 학년별 남·녀 성비는 여학생 1천명에 남학생이 ▲6학년 1천54명 ▲5학년 1천61명 ▲4학년 1천66명 ▲3학년 1천76명 ▲2학년 1천91명 등으로 「애홀아비」수용소라 부르기엔 적합할성 싶다.

저연령층으로 갈수록 남·녀 성비율 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실의 심각성은 정도(正道)의 인술을 펼쳐야 할 의료계의 변태의료 행위와 함께 과감한 수술이 있어야 한다.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뿌리깊게 이루어지고 있는 변태의료행위는 단발성의 단속이 아니라 보건정책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이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공급을 막는다고 막대한 수요계층을 외면하지 못하는 부도덕한 공급원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수요계층의 의식을 계도할 수 있는 것은 장기적인 정책과 교육을 통한 의식의 세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천지신명께 운명을 맡기는 우리 조상들의 체념의식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순리의 터득이기도 했다.

천지신명보다 더 정확한, 그래서 천지신명을 능가하는게 오늘날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태아 성감별 등 변태의료행위라면 자연의 순수한 법칙에 역행한 준엄한 대가는 필연으로 온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卄

서울의 한 남·녀공학 중학교에 「홀아비반」이 생겨 짝없는 홀아비 남학생들의 불만이 이만 저만 아니라는 사실은 웃어버릴 수 없는 심각성이 내재해 있다.